

안전문화 정착과 강한 부대

기고



정 명 식
육군25사단 왕포포병대대·중령

오늘도 우리는 ‘생명을 제일로! 예방을 제대로! 사고를 제로로!’ 라고 안전구호를 외치며 하루를 시작했다. 이는 ‘왕포지킴이’인 전 간부의 일일 다짐이다. ‘왕포지킴이’란 개인과 부대의 전투력 유지와 발휘를 위해 대대 자체적으로 각종 사고예방 책임자로 임명한 제도인데 전 간부가 임명장을 받았다.

이렇게 안전을 강조하게 된 이유는 많은 부대가 전투준비, 교육훈련, 부대관리 등 여러 분야에서 잘하고 있다 해도 한 번의 안전사고로 인해 부대 사기 및 단결력 저하 등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았기 때문이다. 특히, 정상적인 부대운영으로 돌아가는데 긴 시간이 걸리는 것을 보면서 안전문화가 단순히 사고 예방 차원이 아니라 모든 부대 활동 영역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

따라서 군의 안전문화 정착은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장병이 안전문화 개념조차 잘 이해하지 못한 채 안전에 대해 둔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 사실 나 역시도 야전 안전관리관 교육과 안전문화 개념서를 읽어보고 나서야 지금까지 안전문화에 대해서 얼마나 쉽게 생각했는지 알게 됐다. 특히, 그동안의 무사고가 운이라는 생각이 들자 지휘관으로서 심히 부끄러움과 무서움을 느꼈다.

지금까지 군 발생 사고의 93%는 사람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즉, 안전불감증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사고 발생 후, 일시적인 관심과 조치는 근본적인 사고 예방이 될 수 없다. 단지 조금 늦추는 것일 뿐 사고 잠재요인이 남아있어 언제든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안전불감증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위험예지훈련, 사례 교육 등을 해야 하고, 각종 부대 활동 간 전 장병이 위험을 식별하는 습관을 갖도록 지휘관을 포함한 경험 있는 간부들이 현장에서 지도해야 한다. 또한, 군 생활이 서투른 초급간부와 용사들에게 안전기초지식을 교육해야 한다. 즉,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전 장병의 안전문화에 대한 의식개선, 부대 특성에 맞는 안전 시스템 구축, 현장에서 위험요소 분석 및 제거를 통해 불안정한 상태를 최소화하는 환경조성 등 위세가지 요소가 삼위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나는 항상 사고 예방 교육 간 서두에 “조국을 지키기 위해 육군에 보내주시는 아들들! 왕포대대가 ‘안전’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왕포대대장의 약속입니다”라고 다짐을 한다. 부대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부대장이 가장 먼저 솔선수범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모두가 ‘안전은 곧 전투력이다!’라는 개념을 깊이 인식해 강하고 행복한 부대가 되도록 안전문화 정착에 힘써야겠다.

※ 본 지면에 게재된 글들은 본지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국방일보

발행인 박창식 편집인 이길호

1964년 11월 16일 창간(월간) | 2010년 7월 13일 등록번호 서울 가100337 | 인쇄인 장대환

독자관리 발송문의(구독신청 주소변경) 02-2079-3851~2 | 팩스 02-757-9309
인터넷 kookbang.dema.mil.kr | 04353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우로 54-99

디지털기획팀	디지털뉴스 02-2079-3710-4	군947-3710-4
	국방저널 02-2079-3715-6	군947-3715-6
취재팀	취재 02-2079-3730-42	군947-3730-42
	사진 02-2079-3761-4	군947-3761-4
편집팀	편집 02-2079-3770-85	군947-3770-85
	교열 02-2079-3791-4	군947-3791-4
광고문의	02-2079-3123	군947-312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트로트, 좋아하세요?

병영칼럼



전 선 애
방송작가

고 한다. 이 서양음악이 일제강점기 우리나라에도 전해졌는데 민요의 펄림과 격임 소리가 더해진 후 시대의 흐름과 함께 변화하면서 정착한 것이 트로트라고 한다.

처음엔 널리 사랑받는 노래라 해서 유행가라 불렀는데, 최초의 유행가로 손꼽히는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할 일이 무엇이나’고 노래하던 ‘희망가’는 미국 흑인들의 찬송가가 원곡이라고 한다. 오랫동안 왜색논란에 휩싸이며 뿔뿔이러 치부되기도 했지만, 트로트만큼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대중음악이 또 있을까 싶다. 때론 흥겹게, 때론 애절하게, 한번 들으면 흥얼흥얼 따라 부를 수 있을 만큼 쉽고 구성진 가락은 하루하루 삶이 버거운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은 건 바로 노랫말이었다. 나라 잃은 슬픔과 전쟁의 상처, 고향의 그리움과

가난의 서러움처럼 한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의 절절한 사연들이 그대로 가사가 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장 쉬운 언어로, 결코 어렵게 돌려 말하지 않는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누구나 부르는 노래였고, 그 속에 사랑도 있고 이별도 있고 눈물도 있었다 (송대관 ‘네박자’).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도로 남이 되는 장난 같은 인생사(김명애 ‘도로남’), 우지마라 세월 간다 아까운 춘춘 간다 아서라 말어라 춤이나 추자 (나훈아 ‘딱 한번 인생’)며 사람들을 다독인다. 마음이 지친 사람들은 얼큰해진 목소리로 트로트 한 자락을 부르며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속내를 드러내곤 했다. 누군가에겐 인생이고, 추억인 그 노래들은 어렵고 힘든 고비를 견디게 해준 고마운 위로였다. 시대를 넘나들며 오랫동안 트로트가 사랑받아온 이유는 그 때문이 아닐까 싶다.

유행은 돌고 도는 법이니, 지금의 인기가 영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유지한 옛날 음악이라 무시했던 이 비주류음악의 매력을 재발견하고 있는 지금, 한동안 이 구성진 가락에 위로를 받을 것 같다. 영화 <양자물리학>에서 주인공은 “당신과 나의 파동이 맞으면 공명이 일어나서 에너지가 커집니다. 이런 게 바로 시너지 효과라는 거죠”라고 말한다. 적어도 지금 우리는 트로트와 파동이 맞는 시대를 살고 있다.

행성 이름 이야기

한주를 열며



한 인 우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

태음이 됐다. 그리고 다섯 행성에는 오행운을 적용해 앞에 설명한 대로 새로운 이름이 부여됐다. 오행운을 어떻게 오성에 대응시켰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짐작을 해보자. 먼저 화성은 그 붉은 빛깔, 금성은 가장 찬란한 밝기에 따른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추정할 수 있다. 수성과 토성은 공전 주기에 따라 가장 짧은 수성에 유연한 수를, 가장 긴 토성에 안정된 토를 부여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서양(그리스, 로마)에서 하늘은 신화에 나오는 온갖 신이나 정령 그리고 동물의 무대였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리온, 카시오페이아 등의 별자리에 관련된 신화가 대표적이다. 이제 그리스 로마에서 오행성에 어떻게 이름을 지었는지 알아보자. 먼저 주피터(목성)는 신들의 왕이다. 목성은 모든 행성 중에서 그야말로 거인급이다. 질량으로 보면 지구의 300배가 넘고 행성 중 두 번째로 큰 토성의 3배가 넘는다.

그리스인들이 목성의 질량을 알았을 리는 없지만 밝기가 금성 다음으로 밝고 공전 주기가 긴 목성을 신들의 왕으로 생각한 것은 매우 자연스럽다. 새턴(토성)은 그리스 신 계보에서 주피터의 아버지다. 공전 주기가 가장 긴 토성을 가장 오래된 신 새턴으로 생각한 것 같다. 마스(화성)는 전쟁의 신이다. 붉은빛으로 불길한 느낌을 주는 화성을 전쟁의 신으로 생각한 것이 그럴듯하다. 비너스(금성)는 미와 사랑의 여신이다. 오행성 중 가장 밝고 찬란한 금성은 단연 비너스가 어울린다. 마지막으로 머큐리(수성)는 신들의 전령이다. 공전 주기가 가장 짧아 빠르게 움직이는 수성을 전령으로 삼은 것이다.

동양에서는 음양오행설에 입각해 오행성 이름을 정했고, 서양에서는 행성을 신화에 나오는 신과 일치시켰다. 동양의 하늘은 음양오행설의 원리가 적용되는 이지적인 세계이고 서양의 하늘은 신들의 갖가지 스토리로 떠들썩한 신화의 세계다. 그런데 행성의 운동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우주론이 이지적인 동양의 하늘이 아닌 신화의 서양 하늘에서 구축된 것은 좀 아이러니가 아닌가 한다. 그렇지만 역동적인 신화의 하늘에서 역학적인 우주론이 태동한 것도 자연스럽다 할 수 있겠다. 신화와 과학이 세상이나 사가 모두 인간 상상력의 소산이 아니던가.

요즘 밤하늘에 화성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 화성이 태양의 정 반대쪽에 위치해 밤새도록 하늘에서 화성을 볼 수 있고, 또 몇십 년 만에 화성이 지구에 최근 접해 그 밝기가 더 휘황하다. 동양에서 화성은 그 빛깔이 붉어 오행 중 불의 기운을 띠고 있는 듯하다는 의미로 화성이라 했다. 서양에서 화성 마스(Mars)는 전쟁의 신이다. 이 글에서는 화성을 비롯한 태양계 행성의 동서양 이름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알아보기로 한다.

동양에서 수금화목토 다섯 행성은 원래 진성(辰星), 태백성(太白星), 형혹성(熒惑星), 세성(歲星), 진성(鎭星)이라 불렀다. 이는 각 행성의 특성과 관련이 있는데, 금성은 오행성 중 가장 밝기 때문에 태백성, 화성은 밝기가 잘 변하고 행적이 일정하지 않아 형혹성이라 하였다. 목성은 공전 주기가 약 12년으로 고대 동양 천문설에서 12차(구역)로 나눈 하늘을 일 년에 한 구역씩 통과하기에 1년을 뜻하는 세(歲)자를 붙여 세성이라 했다.

음양오행설은 동양 전래의 자연철학으로 모든 자연현상과 사물을 음양 그리고 오행이라는 성질과 관련시키는 자연관이다. 오행이 적용된 예로는 사람의 장기, 색깔, 방위, 감정, 맛 등을 들 수 있다. 음양오행설이 확립됨에 따라 천체에도 이를 적용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천체인 해와 달에 음과 양을 적용해 태양과